성희롱 장면에의 반복노출로 인한 태도변화와 태도의 예측

안서원, 김정인, 김미라, 이경성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성희롱 장면에의 반복노출이 가져오는 태도변화와 그 예측의 정확성을 알아보았다. 실험 1에서는 약한 성희롱 장면에의 반복노출이 약한 성희롱 장면의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반복노출 후 남학생의 경우 태도변화가 거의 없었고 여학생의 경우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런 변화에 대한 예측은 남녀 모두 별로 정확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약한 성희롱 장면에의 반복노출이 보다 강한 성희롱 장면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 결과는 반복노출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강한 성희롱 장면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에 대한 태도 예측은 여학생의 경우만 정확한 편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성희롱은 직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으로 외국의 경우 42%에서 88%에 이르는 직장 여성이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되고 있다(Ragins & Scandura, 1996). 한국여성개발원(2000)이 전국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남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발생률에 대한 결과를 보면, 86.6%의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가벼운 성적 농담을 기준으로 73%의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 49.5%, 심한 신체적 접촉이 16.1%였고 성관계 요구도 4.9%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성희롱 가운에 일상적인 직장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사회문화적 성희롱(gender harassment, 신성자, 1993)이라고 부르는 성차별적 언행과 비교적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다.

이들 행위들을 무시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직장 혹은 사회에서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일부 성희롱 사건들도 초기에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 없이 가벼운 형태의 언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는 직장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청하는 드라마 속에서도 이들 행위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대화와 농담이 일상화 되어있는 성화(sexualized)된 조직일수록 성희롱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이러한 조직의 분위기 혹은 풍토(climate)가 성희롱을 조장한다는 보고도 있다(Gutek, 1985). 그렇다면 이들 행위에 대한 노출이 우리의 행동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가해자는 중립적 혹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반복 노출에 따른 태도변화를 규명해보는 것은 성희롱의 피해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해자의 중립적 혹은 긍정적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 피해자의 부정적 태도가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된다고 가정하면 피해자는 성희롱 하위 유형인 적대적 근무환경형(hostile environment) 성희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성희롱 예방교육 비디오에서 사건 유형별로 뽑아서 재구성하여 가벼운 형태의 성희롱 비디오 장면에 반복노출되는 경험이 유사한 정도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와 보다 강도가 강한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변화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 성희롱 장면에 노출되는 것이 성희롱에 대한 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또한 태도변화와 아울러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의 문제는 성희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대처행동을 하며 그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느냐에 대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반복노출에 의한 태도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단순노출효과(mere exposure effect)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선호 또는 태도변화의 예측과 관련된 연구이다.

단순노출효과란 새로운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점차 그 자극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자주 접촉할수록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단순노출효과는 Zajonc가 1968년에 경험적인 자료와 함께 소개한 후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Moreland와 Beach(1992)는 대학수업에 4명의 여성 연구조교를 참여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노출빈도를 한 학기동안 15번, 10번, 5번 및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달리하였다.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네 조교를 각각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정하게 하였다. 조교들의 외모는 상당히 유사하였으며, 학기 동안 학생들과 다른 상호작용은 없었다. 결과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 많이 참여한 조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과 다른 많은 실험조건에서도 이 효과가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다(Zajonc, 2001).

반복노출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반복노출은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오히려 이 조건하에서 더 큰 태도변화를 보인다. Bornstein과 D'Agosti(1992)는 몇몇 실험참여자들에게 보통 속도의 자극을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에게는 그것을 보았는지 이후에도 알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자극을 제시했다. 단순노출효과는 두 조건 모두에서 발견되었는데 보통 속도로 제시된 자극에서 보다 무의식 조건 하에서 자극을 제시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사람이나 그 밖의 사물들에 대한 최초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부정적일 때 반복노출은 호감을 증가시키지 못하며, 때로는 처음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Swap, 1977). 즉 제시되는 자극의 의미 또는 정서가(valence)에 따라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거나 부정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Zajonc는 노출 이전의 자극의 정서가가 단순노출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는 최근에 수정된 듯하다.

최근 논문에서 Zajonc(2001)는 단순노출효과를 고전적 조건형성으로 설명한다. 일반적인 고전적 조건형성에서는 무조건적인 반응(예, 침 흘림)을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예, 음식)과 조건 자극(예, 벨소리)을 반복 제시하게 되고 조건 자극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면 이것을 조건 반응(예, 벨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것)이라고 한다. Zajonc는 단순노출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반복노출 된 자극은 조건 자극이며 증가된 선호는 조건 반응이라고 보고 조건 자극에 노출될 때와 노출 된 직후에 혐오자극 또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 즉 혐오 자극의 부재 자체가 무조건 자극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즉 반복노출 되는 자극이 아무런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반복노출 되는 자극의 정서가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경우에 한해서 단순노출효과가 나타남을 시사한다.

실제로 단순노출효과를 보여주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자극이 사용되어 왔다(Bornstein, 1989).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었으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즉 반복노출 후에 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결과도 있었고(Grush, 1976), 반대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결과도 있었다(Lambert & Jakobovits, 1960). 이에 본 연구는 부정적인 자극에의 반복노출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 장면에 사람들을 반복노출 시킨 후 이것이 성희롱 장면에 대한 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처음의 반응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태도변화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의 문제는 Kahneman과 Snell(1992)의 연구에서 처음 다루어졌다. 이들은 판단과 의사결정의 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효용(utility) 개념이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다른 두 개념을 소개하였다. 기존의 효용 개념은 결정효용(decision utility)으로 경제학에서 제시되어 심리학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선택행동으로 드러난 효용이다. 즉 사람들이 선택한 결과를 보고 그 대안에 대한 효용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반면 새로이 제시한 개념은 경험효용(experienced utility)과 예측효용(predicted utility)으로 경험효용은 선택한 대안을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갖는 주관적 느낌을 일컫는 것이고 예측효용은 선택을 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미래의 경험효용에 대한 예측이다. 이 세 개념의 효용이 일치될 경우 그 선택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효율적인 것이라고 보았고 Kahneman과 Snell은 예측효용이 경험효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문제, 즉 선택의 타당성(validity) 문제를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Kahneman과 Snell(1992)은 아이스크림, 플레인 요구르트, 팝 음악을 자극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이 반복노출에 의한 선호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실험은 8일간 행해졌는데 참가자들은 첫째 날에 반복노출 될 둘째 날과 8일째의 선호를 예측하였고 실제 8일간 일정량의 자극을 반복경험하면서 자신의 선호를 측정하였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정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자극으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반복노출이 되면 덜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실제로 선호는 줄었지만 예측된 것보다는 적은 정도로 변화했다. 반면 플레인 요구르트는 사람들에게 덜 친숙한 음식의 종류이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오는 자극이었고 반복노출 후 더 부정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복노출 후 선호가 증가하였다. 친숙하지 않은 팝 음악의 경우도 반복노출 후 선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되었고 실제로 줄었으나 예측된 만큼 줄어들지는 않았다.

이들의 연구는 다른 종류의 자극을 이용해서 반복 연구되지 않았다. Kahneman과 Snell(1992)의 논문 이후 Kahneman은 정서적 반응을 수반한 과거경험(예, 장 내시경, 영화 등)을 사람들이 어떻게 요약하여 기억하느냐의 문제를 연구하였고(Fredrickson & Kahneman, 1993; Redelmeier & Kahneman, 1996; Redelmeier, Katz, & Kahneman, 2003), Snell은 단순노출효과 외에 고전적 조건형성, Weber의 법칙, 대립과정이론, 인지부조화이론에 따른 선호의 형성과 변화를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Snell, Gibbs, & Varey, 199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ahneman과 Snell(1992)의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종류의 부정적인 자극을 사용해서 이에 대한 반복노출이 어떤 태도변화를 가져오며 사람들이 이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반복노출의 효과가 노출이 된 유사한 자극에 미치는 영향(실험 1)과 보다 강도가 강한 부정적 자극에 대한 태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실험 2). 일반적으로 반복노출의 효과는 같거나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만 연구되어

왔는데 유사하지만 강도가 다른 자극에는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1

본 실험에서는 강도가 약한 비슷한 종류의 성희롱 장면에 반복노출 되는 것이 약한 성희롱 장면에의 태도변화를 가져오며 사람들이 이를 정확히 예측하는지 알아보았다.

방법

실험참가자. 서울 S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94명(남학생 45명, 여학생 29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94명 중 15명의 자료는 제외되고 79명에 대해서만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제외기준은 결과에 기술하였다.

실험 자극. 약한 성희롱 장면은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제작된 교육용 비디오에서 1-2분 정도 길이의 내용을 5편 발췌하였다. 주로 언어적으로 여성의 역할을 비하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는데 각각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편에서는 직장 상사가 서류를 가지고 온 여직원에게 재떨이를 비워오라고 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자 여직원이 커피 심부름과 청소는 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며 큰 소리로 야단을 친다. 2편에서는 커피 당번이 있음에도 상사가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하고 복사를 시킨다. 3편에서는 회식을 앞두고 이사님 기분이 안 좋으시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부서의 꽃인 여직원들이 기쁨조 역할을 하라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4편에서는 다른 부서의 여직원 대리 승진에 대해 부러워하는 동료 여직원에게 결혼도 안하고 승진만 하면 무엇 하느냐, 여자는 결혼해서 살림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한다. 5편에서는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 일까지 남편이 신경을 써야 하느냐고 야단을 친 후 끊고 동료 여직원을 옆에 둔 채 다른 미혼 남자 직원에게 여자가 미련하면 남자가 고생을 하며 무릇 남자는 밖에서 큰 뜻을 펴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장면에의 반복노출로 인해 태도가 변화할 것을 가정하였는데 동일한 장면을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해서 제시하게 되면 지루함이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의 내용과 수준이 유사한 장면을 반복 제시하였고 전체 제시 회수는 5회로 한정하였다. 실제로 Bornstein(1989)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지루함이 단순노출효과의 한계요인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실험 절차. 94명의 학생들은 세 조건 가운데 한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조건 1은 실험조건으로(n=43) 약한 성희롱 장면을 한 편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후(평가 1) 이와 유사한 성희롱 장면을 네 편을 더 보고 나면 이런 장면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평가하도록 했다(예측). 그리고 실제로 네 편을 연이어 보고, 네 번째 편을 보고 난 후 방금 본 비디오 장면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다시 평가하도록 했다(평가 2). 조건 2와 3은 통제조건으로 조건 2는 예측을 하는 것이 자성 예언(self-fulfilling effect)으로 인해 두 번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평가 1과 2만 하고 예측은 하지 않았다(n=22). 조건 3은 예측이 첫 번째 평가의 영향(anchoring effect)을 받는지 보기 위해 평

가 1 없이 예측과 평가 2를 했다(n=29).

5편의 성희롱 장면은 4개의 다른 순서로 제시되었는데(12345, 34512, 54321, 21543) 제시순서로 인한 평가의 차이는 없었다. 제시순서에 따라 처음 제시된 성희롱 장면이 달랐는데 평가 1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제시된 성희롱 장면이 유사한 것으로 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남학생: $F(3, 32)=1.78$, $p=.17$, 여학생: $F(3, 16)=.43$, $p=.73$.

평가와 예측은 모두 6개의 형용사(기분이 좋다, 유쾌하다, 화나다, 분노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이루어졌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중간~7점 매우 그렇다). 각 형용사에 응답한 결과를 기억하여 답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6개 문항을 평가 1, 예측, 평가 2에 다른 순서로 제시하였다.

결과

결과는 Kahneman과 Snell(1992)이 소개한 Gage와 Cronbach(1955)의 대인판단의 정확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예측과 평가의 평균 비교와 두 개의 상관 정도를 통해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예측과 평가의 평균에서 차이가 나지 않고 유의한 상관이 나오면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변수에서 긍정적인 두 문항, 즉 '기분이 좋다'와 '유쾌하다'의 응답점수는 7점에서 뺀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6개 측정치의 내적일치도(α)는 평가 1, 2, 예측에 대해 각각 .90, .87, .89이었다. 따라서 6개 측정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극으로 쓰인 성희롱 장면은 약한 부정적 자극으로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평가 1에서 종속변수의 값이 4점 이하인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평가 1을 하지 않은 조건 3의 경우 예측이 4점 이하인 것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를 표 1과 2에 제시하였다. 실험조건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동일한 장면의 성희롱 자극을 시청하였으나 이 장면에 대해서 남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평가 1). 따라서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 각 조건의 평균값(표준편차): 실험 1 (7점 척도)

조건	성별	평가 1	예측	평가 2
1	남(n=18)	4.93 (.48)	5.24 (.81)	4.83 (.65)
	여(n=20)	5.63 (.65)	5.92 (.59)	6.14 (.69)
2	남(n=18)	5.53 (.85)		5.57 (.64)
3	남(n=14)		5.01 (.56)	5.1 (.70)
	여(n=9)		6.02 (.71)	6.43 (.49)

표 1에서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실험집단인 조건 1에서 평가 1과 예측 간의 차이가 유의하여서, 성희롱 장면을 한 번 시청한 후 평가하였을 때보다 이와 유사한 비디오를 네 편 시청한 후에 더 부정적으로 느낄 것으로 예측하였다, $t(17)=2.40$, $p<.05$. 그러나 평가 1과 평가 2의 측정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측과 평가 2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둘 간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표 2). 상호상관의 분석 결과는 평가 1과 예측의 상관만 유의하였다. 이 결과로 볼 때 남학생들은 성희롱 장면에 반복노출 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리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반복노출 되었을 때의 평가(평가 2)는 처음의 평가(평가 1)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표 2. 각 조건의 평가와 예측 간의 상관

조건	성별	평가1-평가2	평가1-예측	평가2-예측
1	남(n=18)	.26	.74**	.24
	여(n=20)	.21	.70**	.21
2	남(n=22)	.53*		
3	남(n=14)			.55*
	여(n=9)			-.09

*p<.05, **p<.01

한편 여학생들의 경우 실험조건에서 평가 1과 예측, 평가 1과 평가 2의 측정치가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t(19)=2.69$, $p<.05$, $t(19)=2.62$, $p<.05$, 예측과 평가 2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1).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은 성희롱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한 번 시청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평가하게 했을 때 남학생들보다 부정적 반응을 보였는데(평가 1),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희롱 장면을 네 번 더 시청할 경우 어떨지 예측하게 한 결과 더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실제로 네 편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반응하게 하였을 때에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평가 1, 2와 예측의 상호상관을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는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평가 1과 예측 사이에서만 유의하였다(표 2). 따라서 여학생들도 평가 2와 예측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두 측정치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예측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두 통제조건과 실험조건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 먼저 예측의 자성 예언 효과, 즉 평가 2에서 예측에 맞도록 응답하였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건 1과 2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1과 평가 2 사이의 차이가 예측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조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 $F(1, 34)=.24$, $p=.63$. 따라서 예측의 자성예언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처음의 평가가 기준이 되어서 이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anchoring effect)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건 1과 3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2와 예측의 차이가 평가 1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였고 조건에 따른 차이는 남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 $F(1, 30)=3.00$, $p=.09$, 여학생: $F(1, 27)=.30$, $p=.59$. 따라서 남녀 모두 예측이 평가 1에 고정되어 예측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요약하면 처음의 평가가 약간 부정적이었던 남학생들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희롱 장면에 반복노출 되면 성희롱 장면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의 평가와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에 처음의 평가가 남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이었던 여학생들은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성희롱 장면에 반복노출 되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실제로 반복노출 시켰을 때에도 처음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 처음 자신이 시청한 성희롱 장면에 반복노출 되었을 때 느낄 정서의 수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실험 2

반복노출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만 연구되어 왔다. 반복노출

1) 실험조건과 두 통제조건의 비교 해석은 조건 2의 경우 여학생 집단이 없었던 점, 조건 3의 경우 여학생의 수가 적었던 점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이다.

의 효과가 유사하지만 강도가 더 강한 자극에 대해서도 일반화되는지를 보고자 본 실험에서는 약한 성희롱 장면에 반복노출 되는 것이 강한 성희롱 장면에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방법

실험참가자. 서울 S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생 83명(남학생 43명, 여학생 4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83명 중 20명의 자료는 제외되고 63명에 대해서만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제외기준은 결과에 기술하였다.

실험자극. 약한 성희롱 장면 5편은 실험 1에서 사용된 것을 사용하였고 강한 성희롱 장면 1편은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제작된 교육용 비디오에서 1-2분 정도의 길이로 발췌하였다. 내용은 상사가 여직원에게 서류를 재검토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쓰다듬는다. 이에 여직원이 불편한 기색을 하자 뭘 그러느냐며 두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고 여직원이 자리를 피하려고 일어나자 엉덩이를 친다.

5편의 성희롱 장면은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4개의 다른 순서로 제시되었는데 남녀 모두 제시순서에 따른 평가의 차이는 없었다. 제일 처음 제시된 약한 성희롱 장면에 대한 평가(평가 1)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약한 성희롱 장면이 유사한 것으로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 $F(3, 10)=2.43$, $p=.13$, 여학생: $F(3, 12)=2.69$, $p=.09$. 제일 처음 제시된 약한 성희롱 장면과 약한 성희롱 장면에 노출되지 않고 바로 강한 성희롱 장면에 노출된 집단의 평가를 비교한 결과 강한 성희롱 장면이 유의하게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남학생: $F(1, 27)=6.50$, $p<.05$, 여학생: $F(1, 32)=29.17$, $p<.01$. 이것은 강한 성희롱 장면이 약한 성희롱 장면보다 실제로 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음을 보여준다.

실험 절차. 실험조건의(n=43) 절차는 약한 성희롱 장면을 하나 보고 평가를 한 후(평가 1) 유사한 장면 네 편을 더 보고 신체접촉이 있는 성희롱 장면을 본다면 그에 대해 어떻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보고하게 하였다(예측). 보다 강한 강도의 성희롱 장면에 대한 예측임을 알리기 위해 '신체접촉' 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네 편의 비디오를 연이어 본 후 성희롱 강도가 보다 강한 비디오를 보고 그에 대해 평가를 하게 하였다(평가 2). 실험 1의 두 통제조건에서 예측과 평가 1이 각각 평가 2와 예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험 2에서는 실험 1과 같은 통제조건을 두지 않았다. 대신 약한 자극에의 반복노출이 강한 자극에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 한 통제조건에서 반복노출 없이 바로 강한 자극을 보고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통제조건의 참가자들은(n=40) 강한 비디오 장면만 본 후 평가를 하였다.

평가와 예측은 모두 6개의 형용사(기분이 좋다, 유쾌하다, 화나다, 분노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에 대해 7점 척도로 이루어졌고(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중간, 7점: 매우 그렇다) 기억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6개 문항이 평가 1, 예측, 평가 2에 다른 순서로 제시되었다.

결과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험 2에서도 6개 측정치의 평균점수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였다. 6개 측정치간의 내적일치도(α)는 평가 1, 2, 예측 각각에 대해 .88, .86, .86이었다. 실험조건의 경우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 1이 4점 이하인 응답자를 제외하였고 실험 2의 경우 강한 성희롱 장면과의 비교이기 때문에 약한 성희롱 장면을 강하다고 평가한 응답자, 즉 평가 1이 6점 이상인 응답자도 제외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평가가 4점 이하인 응답자를 제외하였다. 그 결과 실험 조건에서는 13명, 통제조건에서는 7명의 응답자가 제외되었다.

실험 1에서와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가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표 3). 즉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약한 성희롱 장면에 대한 반응인 평가 1보다 강한 성희롱 장면에 대한 반응인 평가 2가 더 부정적이었다, 남학생: $t(13)=5.03$, $p<.01$, 여학생: $t(15)=5.72$, $p<.01$. 평가 1과 예측의 차이도 유의하여서 강한 비디오를 시청하면 평가 1에서보다 더 부정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남학생: $t(13)=2.51$, $p<.05$, 여학생: $t(15)=4.60$, $p<.01$. 평가 2와 예측 사이에는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두 측정치간의 상관관계는 여학생만 유의하였다(표 4). 상관과 평균비교의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강한 성희롱 장면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에 대한 예측은 여학생만 정확한 편이었다.

표 3. 각 조건의 평균값: 실험 2 (7점 척도)

조건	성별	평가 1	예측	평가 2
실험	남(n=14)	5.07 (.55)	5.62 (.80)	5.82 (.38)
	여(n=16)	5.03 (.50)	5.88 (.97)	6.13 (.74)
통제	남(n=15)			5.64 (.65)
	여(n=18)			6.13 (.67)

표 4. 실험조건의 평가와 예측 간의 상관

성별	평가1-평가2	평가1-예측	평가2-예측
남(n=14)	.34	.33	.39
여(n=16)	.28	.67**	.57*

*$p<.05$, **$p<.01$

통제조건에서는 약한 성희롱 장면의 시청 없이 바로 강한 성희롱 장면을 시청한 후 어떻게 느끼는지 평가하였고 통제조건과 실험조건을 비교한 결과로 약한 성희롱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강한 성희롱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조건에서의 평가 2와 통제조건의 평가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실험조건과 통제조건의 측정치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 남학생: $t(27)=.89$, $p=.38$, 여학생: $t(32)=.02$, $p=.99$. 이것은 약한 성희롱 장면의 반복적 노출이 강한 성희롱 장면의 평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논의 및 결론

성희롱 행동은 직장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심각한 성희롱 행동의 경우는 발생빈도도 적고 남녀 모두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가벼운 형태의 성희롱은 사건 당사자가 가해자냐 피해자냐에 따라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성희롱은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그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Fitzgerald & Ormerod, 1991; Workman & Johnson, 1991). 남자와 여자는 특정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명명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역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에 의해서 이들이 우호적이거나 유머러스한 혹은 장난기가 섞인 것으로 의도된 행동이 여성들에게는 종종 성희롱으로 지각될 수 있다(Rossi & Weber-Burden, 1993). 더구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약한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희롱 장면에 대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며 이러한 변화를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실험 1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약한 성희롱 장면에의 반복노출이 가져오는 태도변화가 거의 없었고 여학생의 경우 더 부정적으로 되었다. 변화에 대한 예측은 남녀 모두 정확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더 부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변화가 없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예측한 것보다 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실험 2의 결과는 약한 성희롱 장면에의 반복 노출이 강한 성희롱 장면에의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태도 변화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강도가 강한 자극에의 태도 예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만 그 예측이 정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노출효과가 성희롱과 같은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Kahneman과 Snell(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플레인 요구르트의 경우 단순노출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플레인 요구르트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자극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다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 아직 선호가 형성되지 않은 자극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부정적 자극의 강도에 따라 단순노출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즉 강도가 낮은 부정적 자극에 대해서는 단순노출효과가 나타나지만 강도가 강한 부정적 자극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태도가 변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Kahneman과 Snell(199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반복노출로 인한 태도변화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반복노출로 인한 태도 변화를 관찰할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고 이런 변화에 대해 자기통찰(self-insight)을 얻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학생들이 동일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2] 물론 성별의 차이가 비디오 내용상에서 남자가 가해자 여자가 피해자로 등장한 이유도 있겠지만 성희롱 지각에 대한 역치가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남자들이 직장 내에서 남녀 상호간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보여 질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의 행동들이 여성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여학생들이 더 부정적으로 태도가 변하였다는 사실은 성과 관련된 농담과 대화가 일상화되어있는 조직의 경우 여성들이 이러한 행태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성희롱 예방에 대한 홍보물에서는 무심코 던진 가벼운 형태의 성적 농담이나 성차별적 언행이라도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우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용 비디오를 일회적이기 보다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

2) 조건 2의 남학생 집단은 다른 조건의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과 비슷하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조금 예외적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반복노출에 의한 태도 변화는 없었다.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민감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대처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실제 성희롱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남성에게서도 성희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편으로는 남녀 양성평등을 지양해야 할 현 시점에서 가벼운 형태의 성희롱에 대해서 남성들이 그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일방의 구호에만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벼운 형태의 성희롱에 대한 부적절성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사건들이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단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용 비디오의 내용을(강도나 피해자의 성별 등) 성별에 따라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다 성희롱 정도가 강하거나 남성이 피해자로 나오는 성희롱 장면에 반복노출 되는 경우 남학생도 여학생과 비슷한 태도변화를 보일지는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신성자(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제 5집. 93-110.

한국여성개발원(2000). **공공기관 남녀 종사자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Bornstein, R. F., & D'Agostino, P. R.(1992). Stimulus recognition and the mere exposur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545-552.

Bornstein, R. F. (1989). Exposure and affect: overview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1968-1987. *Psychological Bulletin, 106*, 265-289.

Fitzgerald, L. F., & Ormerod, A. J. (1991).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influence of gender and academic context.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218-229.

Fredrickson, B. L., & Kahneman, D. (1993). Duration neglect in retrospective evaluations of affective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5-55.

Gage, N. L., & Cronbach, L. J. (1955).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interperson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62*, 411-422.

Grush, J. E. (1976). Attitude formation and mere exposure phenomena: a non-artifactual explanation of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81-290.

Gutek, B. A.(1985). *Sex and the Workplace: The Impact of Sexual Behavior and Harassment on Women, Men, Organiz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Harrison, A. A. (1977). Mere exposur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pp. 39-83). New York: Academic Press.

Kahneman, D., & Snell, J. (1992). Predicting a changing taste: do people know what they will lik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5*, 187-200.

Lambert, W. E., & Jakobovits, L. A. (1960). Verbal satiation and changes in intensity of mea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0*, 376-383.

Moreland, R. L., & Beach, S. R. (1992). Exposure effects in the classroom: The development of affinity among stud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 255-276.

Ragins, B. R., & Scandura, T. A.(1996). Antecedents of work-related correlates of reported sexual harass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competing hypotheses. *Sex Roles*, 32, 429-455.

Redelmeier, D. A., & Kahneman, D. (1996). Patients' memories of painful medical treatments: real-time and retrospective evaluations of two minimally invasive procedures. *Pain, 66*, 3-8.

Redelmeier, D. A., Katz, J., & Kahneman, D. (2003). Memories of colonoscopy: a randomized trial. *Pain, 104*, 187-194.

Rossi, P. H., & Weber-Burden, E. (1993). Sexual harassment on the campus. *Social Science Research, 12*, 131-158.

Snell, J., Gibbs, B. J., & Varey, C. (1995). Intuitive hedonics: consumer beliefs about the dynamics of liking.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4*(1), 33-60.

Swap, W. C. (1977). Interpersonal attraction and repeated exposure to rewarders and punis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248-251.

Workman, J. E., & Johnson, K. K. P. (1991). The role of cosmetics in attributions about sexual harassment. *Sex Roles, 24*, 759-769.

Zajonc, R. B. (2001). Mere exposure: a gateway to the sublimina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6), 224-228.

Repeated exposure effects of sexual harassment scenes on attitude change and prediction of attitude change

Sowon Ahn, Jeongin Kim, Mira Kim, Kyungse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repeated exposure of sexual harassment scenes on attitude change and predictive accuracy of attitude change. In experiment 1, we examined the effects of repeated exposure of mild sexual harassment scenes on a similarly mild scene. Male undergraduates showed no attitude change after repeated exposure, whereas female undergraduate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 after repeated exposure. The prediction of attitude change in both groups was not accurate. In experiment 2, we examined the effects of repeated exposure of mild sexual harassment scenes on a rather strong sexual harassment scene. The results showed no effect. Both group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strong scene and prediction of the attitude was accurate only in female undergraduates. Finall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CI